

『문장(文章)』의 번역 양상과 그 의미*

정성훈**

목 차

1. 서론
2. 기획의 부재가 낳는 다양성: 외국문학 번역
3. ‘좋은 전쟁문학’과 ‘보고문학’ 사이에서: ‘전선문학선’
4. 식민지 미디어에서의 검열과 번역: ‘SCRAPS’ 및 시국 관련 글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잡지 『문장(文章)』(1939~1941)에 수록된 번역 텍스트의 저본 및 번역 방식상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연구사의 공백을 메꾸고, 당시의 검열장, 매체 환경, 담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번역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문장』을 보다 풍부하게 읽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밝힌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은 꾸준히 외국문학의 번역을 게재하였는데, 비록 작품이나 역자의 성격에서 큰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그러한 비체계적인 번역 기획은 오히려 ‘조선문학이 추구해야 할 세계문학’이나 ‘교양으로서의 세계문학’이라는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텍스트를 게재하는 효과를 낳았다.

둘째, 『문장』에 마련된 ‘전선문학선’이나 ‘SCRAPS’, 그리고 시국 관련 글들은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일관되게 동시기의 일본어 잡지 또는 단행본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서도 ‘전선문학선’은 다른 외국문학

* 이 글은 한국현대문학학회 2024년 1차 학술대회 〈낮은 곳의 생명, 모든 곳의 생명: 1970~80년대 민중론의 생태주의적 탈구축〉(2024.2.17.)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자세히 읽어 주시고 유익한 조언을 남겨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 세 분, 토론자 전세진 선생님(서울시립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번역과는 달리 작품의 극히 일부만이 초역(抄譯)되어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단편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당시 조선 비평계에서 일본의 전쟁문학을 ‘보고문학’으로 평가하는 관점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있다.

셋째, 『문장』은 구미 작가들의 에세이나 여타 시국과 관련된 넓은 스펙트럼의 글들을 동시기 일본어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왔다. 이때 일본어 잡지의 중역은 검열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글들을 실으면서도 일본의 미디어에서 검증이 완료된 것을 번역함으로써 검열을 우회하려던 시도로 해석된다.

『문장』의 번역 텍스트는 번역 방식이나 내용 등에서 제각기 차이가 있으나 잡지의 지속적인 출간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문장』은 조선문학의 일반적인 창작 경향과 차이가 있는 다른 시공간의 문학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동시에 시국에 대한 글을 창작하기보다는 ‘번역’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일전쟁과 신체제, 세계대전이라는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번역 행위는 잡지라는 매체의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바, 이와 같이 『문장』 번역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문장』의 매체 전략이나 정치성을 재고할 여지를 마련할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잡지매체에서 ‘번역’이 지닐 수 있었던 잠재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데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문장』, 번역, 외국문학, 전쟁문학, 검열, 식민지 미디어

1. 서론

『문장(文章)』(1939.2.-1941.4., 통권 26호 발행)은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일제의 검열과 극심한 종이난 등으로 잡지 간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2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조선어문학의 발표지면으로 기능했다는 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학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연구 초기에는 동시기 인문평론사에서 발간된 『인문평론(人文評論)』과의 대비를 통해 『문장』을 ‘친동양적·친한국적’, ‘창작 중심’, ‘감성적’, ‘우리문화 중심 소개’,

‘국내의 창작발표에 주력’ 등의 성격을 지닌 매체로 규정하는 관점,¹⁾ 이른바 ‘문장파’의 세계관을 통해 『문장』의 세계관을 구명하는 관점²⁾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어, 193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고전부흥’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한 황종연의 연구³⁾ 이래, 『문장』의 성격을 고전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 또한 이루어졌다.⁴⁾ 이어진 작업들은 『문장』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고전’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옛것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상고주의적 지향이 아니라 1930년대 말 문학장에서 『문장』이라는 매체가 지녔던 미적·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게 했고,⁵⁾ 한국문학사에서 『문장』이 가지는 특수한 위상과 그 의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잡지의 위상과 의의를 다룰 때 종종 마주하는 난점은, 해당 잡지가 내세우는 가치나 주요 편집진의 지향성을 통해 잡지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는 논법이 때로는 잡지가 지니는 다양한 면모를 해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문장』은 그 고전주의적 성격에 걸맞게 각종 고전을 전재(全載)하거나 조선학 관련 연구성과들을

1)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587면.

2)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3)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4) 정주아, 「『文章』誌에 나타난 ‘古典’의 의미 고찰」, 『규장각』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문혜윤,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학회, 2009.

5) 『문장』의 매체적 전략에 주목한 이봉범의 논의, 고전주의라는 이념의 실체로서 『문장』의 예술성을 밝힌 김슬기의 논의, 『문장』의 수필에 나타난 문화의 창안 기획을 살핀 장만호의 논의, 고전을 ‘미적 취향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모더니스트들의 미적·정치적 전위로 『문장』을 파악한 손유경의 논의 등이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봉범, 「잡지 『문장』의 성격과 위상」,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김슬기, 「『문장』의 미적 이념으로서의 『문장』: 김용준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학회, 2009; 장만호, 「『문장』: 문학에서 문화로: 『문장』지 소재 수필의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손유경, 「『문장』의 전위와 전통」,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게재하면서도, 동시에 ‘종합 문예지’로서 매호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 지면을 채워 나가야 했다. 여기서 고전주의적 성격에 방점을 찍으며 편집진들의 세계관을 구명하고 그와 연동하여 잡지의 성격을 ‘고전주의’, ‘순문예지’, ‘전통지향성’ 등으로 명명할 경우 그에 부합되지 않는 글들은 해명될 수 없는 ‘나머지’가 되고, ‘왜 전체적인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글이 실렸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장』에 실린 번역 텍스트이다. 고전주의나 전통지향성이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닌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번역’은 거기에 더해 공간적으로도 ‘여기’가 아닌 곳의 글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전·전통의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은 매호 외국문학이나 구미 작가들의 에세이, 일본의 전쟁문학, 시국과 관련한 글들을 번역해 왔으며, 이러한 번역 텍스트를 모두 합하면 약 90건 정도로 거의 천 건에 달하는 전체 기사 중에서 약 1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고는 이른바 고전주의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문장』의 미적·정치적 성격들을 분석해 온 선행 연구들의 흐름을 이어받아, 번역 텍스트에 집중하여 『문장』을 다시 읽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문장』에 어떤 형식으로 번역 텍스트가 실렸는지를 정리해 보자. 목차나 본문에 기입되어 있는 표지(標識)를 참조하여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일본문학을 제외한) 외국문학의 번역 및 소개⁶⁾
- (2) 외국의 명문(名文)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양주동의 『근고동서기문』

6) 여기에는 ‘해외소설’, ‘중국소설’, ‘해외희곡’, ‘노벨상소설’ 등과 같은 표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번역된 외국소설 및 희곡 텍스트는 목차상에서 다른 조선어소설 및 희곡과 마찬가지로 ‘창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병기가 주해를 단 「한중록」 또한 목차상 ‘창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장』의 편집진에게는 고전산문, 외국소설/극, 조선소설/극을 가릴 것 없이 ‘소설/극’이면 곧 창작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 선」(통권 2호~7호, 9호~12호, 총 10회)
- (3) '전선문학선'이라는 표지로 연재된, 종군문학 작품의 번역(통권 2호~5호, 8호~17호, 24호)
- (4) 'SCRAPS'라는 표지로 연재된, 외국 작가들의 에세이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통권 13호~18호)
- (5) 그밖에 특별한 표지는 없으나 외국 소식 및 시국 관련 시평, 혹은 외국의 문학평론을 번역하여 실은 것.

이러한 글들은 장르 면에서나 원문의 언어 면에서나 큰 다양성을 보이는 데, 『문장』의 편집후기에 해당하는 『여묵』에서도 번역 텍스트에 대해 언급하는 지점을 특별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잡지 차원에서의 기획의도를 뚜렷이 발견하기는 어렵다. 외국문학 번역의 경우 역자가 직접 작품이나 작가를 소개하면서 번역의 의도를 덧붙인 경우가 있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문장』의 번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선행 연구로는 강호정(2010), 하재연(2010), 이상숙(2011)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문장』이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검열이나 전쟁문학의 관점에서 『문장』의 '전선문학선'을 다룬 연구로 박광현(2008), 이상경(2019)이 있다.⁷⁾ 이중 강호정은 『문장』의 번역 텍스트 전반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양주동의 『근

7) 박광현은 총독부 검열관이자 통역관이었던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를, 이상경은 그가 번역한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의 기획 번역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문장』의 '전선문학선'을 논의하였다. 당대 검열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박광현은 '전선문학선'의 기획이 경무국에 의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상경은 그러한 가운데 『문장』이 항일전쟁을 수행하는 중국 작가의 글을 싣는 점 등을 근거로 『문장』의 저항성을 설명하였다. 이들 논의는 『문장』이 시국 관련 글을 게재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주요한 참조점이 되거니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와 조선어문」, 『흔들리는 언어들: 언어의 근대와 민족국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이상경, 「제국의 전쟁과 식민지의 전쟁문학: 조선총독부의 기획 번역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兵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2019.

고동서기문선』에 초점을 맞추어 양주동이 동양 고전과 서양 근대문학에서 제재를 취해 번역한 것이 『문장』의 미의식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⁸⁾ 하재연은 ‘전선문학선’과 그 외의 시국 관련 글을 대상으로, 『문장』이 “전시하의 ‘국민문학’과 독자적인 개성을 지니는 조선의 국민문학 건설이라는 화해하기 어려운 이중 과제” 아래 놓여 있었음을 지적한다.⁹⁾ 이상숙은 주로 외국문학 번역을 다루면서 번역된 각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고, 세계문학이라는 흐름과 신체제라는 정치적 변화를 『문장』이 어떻게 담아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을 행했다.¹⁰⁾ 이와 같이 『문장』의 번역 텍스트가 실려 있는 각각의 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본고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작업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크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들은 논의를 초점화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문장』에 실린 다양한 종류의 번역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는데, 이는 무엇보다 해당 번역 텍스트의 원 소재나 번역자, 번역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각 번역 텍스트의 저본이 무엇이며 그것을 누가 번역했는지, 각 번역의 방식에 있어서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러한 번역 방식은 당시의 검열장, 매체, 담론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가급적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가능한 한 연구사의 공백을 메꾸는 데 목표를 둔다. 전술하였듯 『문장』에서는 번역 텍스트의 선정 의도나 그 번역의 의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번역된 텍스트의 내용에만 근거하여 번역의 ‘의도’를 추측해 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번역 저본을 검토한 뒤 각 번역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번역이

8) 강호정, 『양주동의 「近古東西奇文選」을 통해 본 『문장』의 미의식』, 『어문논집』 43, 중앙어문학회, 2010.

9) 하재연, 『『문장』의 시국 협력 문학과 「전선문학선」』, 『한국근대문학연구』 11-2, 한국근대문학회, 2010, 484면.

10) 이상숙, 『『文章』의 해외문학 연구』,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라는 행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 즉 ‘누가(역자의 성격), ‘무엇을(번역 대상의 범위), ‘어떻게(번역의 방식) 번역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의 번역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외국문학 번역의 사례를 살핀다. 후술하겠으나 『문장』의 외국문학 번역은 특별한 기획의도 하에 놓이지 않고 각 역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자 구성으로 인한 ‘비일관성’이 가지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다만, 양주동의 『근고동서기문선』에 대해서는 강호정의 연구가 상세히 다루고 있어,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3장에서는 ‘전선문학선’의 번역 양상을 살핀다. 여기서는 주로 초역(抄譯)이라는 번역 방식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당대의 전쟁문학 담론과 연결지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SCRAPS’ 및 시국 관련 시평의 번역 양상을 다룬다. 대부분이 일본어 매체에 실린 글을 증역한 것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번역이 문역(文域)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고려하여¹¹⁾ 식민지 미디어로서 『문장』이 행한 ‘시국’ 번역의 정치적 성격을 가늠한다. 종합적으로는 『문장』의 발간 과정에서 번역이라는 행위가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정한 개인이 아닌 잡지 매체로서의 『문장』이 번역을 수행하는 방식과 그것이 빚어낼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기획의 부재가 낳는 다양성: 외국문학 번역

외국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갖는 함의는 다양하다.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문학’의 성립을 위해 ‘태서문학’으로 대변되는 서양문학을 번역·소개했던

11) 각각의 ‘법역(法域)’에 따라 허용되는 서술가능성의 임계를 의미하는 ‘문역’이라는 용어는 한기형, 「법역과 문역: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식민지 텍스트」, 한기형 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에서 제안된 것이다.

시기(1910년대)가 있었는가 하면, “조선 신문학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 문학 번역을 통해 민족문학의 발전을 도모했던 시기(1920년대)도 있었다.¹²⁾ 또 1920년대 말을 지나며 외국문학을 중역 없이 직접 번역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외문학』 동인이나 경성제대를 위시하여 외국문학의 ‘연구’에 중점을 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문장』이 발간되던 1930년대 말의 외국문학 번역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선행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에 ‘민족문학’의 발전을 위해 중역으로 외국문학을 번역해 왔던 세대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번역”이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실천 방식을 병행하기보다 조선어로 된 신문학의 ‘창작’에 집중하는 편을 택”하기 시작했다.¹³⁾ 이와 달리 지속적으로 외국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번역소개해 온 이들은 전술했던 『해외문학』 동인, 또는 경성제대 등의 학술장에서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언어권의 전공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주도하면서

12) 손성준, 『세계문학과 민족문학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 주체의 향방, 홍명희의 경우』, 『코기토』 9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53면.

13) 손성준, 앞의 글, 55면. 따라서 조선문학이 과연 ‘세계문학’의 수준에 도달했는가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논의거리였는데, 『문장』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현진건은 인터뷰에서 (현 시대가) “세계적으로 문학의 빈곤 시대”인 가운데 “조선의 일각에서 세계를 진감(震撼)하는 작품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춘원의 『무명』, 벽초의 『임꺽정전』, 월탄의 『금삼의 피』 같은 작품은 세계적 수준을 높이 뛰었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였다(현진건, 『침묵의 거장 현진건 씨의 문학종횡담』, 『문장』 11, 1939.11., 119면). 한편 신춘좌담회에서는 조선문학이 외국어로 ‘피번역’되는 것과 관련해서 박종화가 “지금 우리의 소설의 생산력이 질로나 양로나 수출품이 될지 못할지는 의문인 것 같”다고 하거나 임화가 “번역된 작품이 어떤 점에서 저쪽 사람의 흥미를 끄는지 그것도 생각해서 시야를 넓여야 할 것”, “번역될 것을 기대한다면 세계적인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신춘좌담회: 문학의 제문제』, 『문장』 13, 1940.1., 190면). 조선문학이 외국에서 번역되어 읽힐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이 엇갈리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단계에 이른 시기였으며 그만큼 외국문학의 수용 방식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하 『문장』을 인용할 때 호수는 전부 통권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문장』에 수록된 글의 서지사항을 밝힐 때에는 괄호 안에 호수와 발간연월만을 병기한다.)

“한층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이 개입”되며 그만큼 “외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¹⁴⁾ 『문장』과 동시기에 간행된 『인문평론』 또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재서의 주도로 『인문평론』은 “외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기저로 삼아 ‘근대의 정신 즉 서구의 과학정신, 합리적 정신과 호환되어 개인이 도달해야 할 가치 개념으로서의 교양을 전파’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⁵⁾

이를 염두에 둘 때, 『문장』의 지향은 어디에 있었으며, 외국문학의 번역이 잡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했는가? 표면화된 진술에 한해 말하자면, 『문장』의 주요 편집진 중 한 명이었던 이태준은 외국문학 번역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외국문학 번역과 관련해서 1940년 신춘좌담회에서 오간 대화를 보자.

외국문학 번역과 그 영향

이태준: 조선 사람이 증역(重譯)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갖다 한 것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지용: 『검둥의 서름』이 직접 역한 것일걸.

유진오: 나두 한 십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임화: 대개들 심심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한 것이 조선문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조선의 신문학 초기 때의 번역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요.

정지용: 소설보다 시의 번역은 많았지요. 그 중엔 선역(善譯)도 꽤 있을걸요.

양주동: 번역은 한대야 힘만 들었지 대우는 나쁘구……

유진오: 동경(東京)서 되기 때문에 조선번역의 요구가 적은 때문도 있겠지요.

14)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세계/민족, 문학』,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 49면.

15)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272면.

임화: 동경이 빨르거든. 그리구 그때의 문학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이태준: ‘찌어덜리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림: 그때 문학이 요구했다 하지만 불순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지 문단만 하드래두 번역문학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해 놓고는 앞뒤에서 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¹⁶⁾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 걸쳐 『해외문학』 동인들이 중역 없이 직접 외국문학을 번역소개하는 것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준은 ‘조선인이 중역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것이 몇이나 있는가’ 하는 다소 심드렁한 태도를 보인다. 정지용만이 그간 이루어져 온 시 번역에 대해 좋은 평을 내릴 뿐으로,¹⁷⁾ 다른 참석자들도 번역의 필요성이나 의의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을 주로 한다. 이미 도쿄에서 외국문학이 많이 번역되기 때문에 (일본어 해득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조선어 번역의 수요가 적다는 의견, 품이 많이 들지만 제대로 대우는 받지 못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문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양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외국문학의 번역을 게재해 왔음은 분명하다. 아래는 『문장』에 수록된 외국문학 작품 또는 평론/연구의 번역 목록이다.

16) 『신춘좌담회: 문학의 제문제』(13호, 1940.1.), 189~190면.

17) 이는 정지용이 영문학 전공자로서 외국시나 신화 번역을 여러 차례 수행해 왔으며 특히 그러한 경험을 창작의 밑거름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외국문학 번역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전세진, 「정지용 번역 연구(1): 정지용 초기 시 번역의 특징—정지용의 타고르(R. Tagore)와 블레이크(W. Blake) 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2, 한국근대문학회, 2020; 전세진, 「정지용 번역 연구(2): 번역과 창작 사이, 자기 변용적 창조—그리스 신화의 모티프 차용을 통한 시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4, 한국현대문학회, 2021 참조.

〈표 1〉 외국문학 작품 번역 목록

제목	작가	역자	호수	원전 또는 추정 번역 저본
窓살에 남은 詩句	에일스	임학수	3	W. B. Yeats, <i>The Words Upon the Window Pane</i> , Dublin: The Cuala Press, 1934.
魔術師	아더 스추링거	임영빈	5	Arthur Stringer, "The Juggler," <i>The Sunday Star</i> , Washington, 1921.4.3., Part 4, p.2.
肖像畫 ¹⁸⁾	A. 헉슬리	정규창	9	Aldous Huxley, "The Portrait," <i>Harper's Monthly Magazine</i> , 1922.2.
샐러리맨 ¹⁹⁾	J. Joyce	양주동	10	James Joyce, "Counterparts," <i>Dubliners</i> , Grant Richards Ltd., 1914.
最後의 慰安	嚴良才	정래동	11	嚴良才, 「最後의安慰」, 『創造週報』 29-30, 1924.
微笑	피요도르· 솔로구브	정규창	14	“ 46, 1897; Feodor Sologub, Translated by John Coumos, "The Smile," <i>The Old House and Other Tales</i> , London: Secker, 1915. [번역 저본 ²⁰⁾]
실리아	F. E. 실란페에	미상	15	Frans Eenil Sillanpää, <i>Nuorena nukkunut</i> , Otava, 1931.
長恨歌	白樂天	김억	17	白居易, 「長恨歌」, 806.
秋夜	치쵸·마르	홍형의	18	Cicio Mar(叶君健), "Julia Nokto," <i>La Forgesitaj Homoj</i> , 1937.
낭만적氣質	마아틴· 아암스즈롱	이호근	20	Martin Armstrong, "A Romantic Temperament," <i>Sir Pompey and Madame Juno and other Tales</i> , London: Jonathan Cape Thiry Bedford Square, 1927.

18) 이 작품은 이미 양주동이 한 차례 번역하여 『중앙』 2(5)(1934.5.)에 게재된 바 있다. 이하, 기번역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9)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Counterparts」를 번역한 것인데, 이미 양주동 본인이 번역하여 『동아일보』(1934.4.2.-11.)에 연재했던 것을 일부 표기만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이때 실린 역자의 말에서 양주동은 조이스가 「율리시즈」로 유명하면서도 평가에 따라 그 문화적 평가는 상당히 갈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Counterparts」는 「율리시즈」와 같은 “난삽유현한 귀공(鬼工)이 없는 대신, 여실한 북구(北歐)적 사실주의, 일상쇄사(日常瑣事)에 대한 주도한 묘사와 극명한 필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작중에 표현된 더블린 시의 소봉급생활자의 하염없는 생활과 울

TUTTO È SCIOLTO ²¹⁾	제임스 조이스	이봉호	25	James Joyce, "Tutto è Sciolto," <i>Poetry</i> , 1917.5.
안해를위하야 ²²⁾	터머스 · 하디	김상용	26	Thomas Hardy, "To Please His Wife," <i>Black and White</i> , 1891.

〈표 2〉 외국어 평론·연구 번역 목록

제목	작가	역자	호수	원전 또는 추정 번역 저본
一九三八年度 노벨賞受賞者 피에르·뱌두 ²³⁾	라옥스	김상용	1	미상
波蘭의 現代文學 ²⁴⁾	A. 피스콜	정학철	11	A·비스코르, 『現代ポーランド文學』, 『知性』 2(10), 河出書房, 1939.10., 98~104면. [번역 저본. 원전은 미상]

올한 감정은, 우리에게도 약간의 공통된 분위기와 감흥이 없지 않다"고 평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문장』에 『셀러리맨』을 다시 신게 된 하나의 이유였을 수 있다.

- 20) 역자인 정규창이 "존·코너스의 영역본에 의함"이라는 부기를 붙였기 때문에 1915년 영어판이 번역 저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21) 역자인 이봉호(李鳳鎬)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김병철의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에 따르면 『학등』 23호(1936.3.)에 이봉호(李奉鎬)라는 인물이 이미 Tutto è Sciolto를 비롯한 조이스의 시 세 편을 번역한 바 있으며(김병철, 앞의 책, 710면), 『문장』 수록본과 비교해볼 때 마지막 연의 일부(마지막 행에서 "그 女子의 한숨지어 바친 그사랑이"가 "그 女人이 한숨 쉬여 바친 그 사랑"으로 바뀌어 있다) 및 행갈이의 위치를 제외하면 표현상 두드러지게 개역(改譯)되지는 않았다. 한편 『문장』에서 이 시는 연회전문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이양하의 제임스 조이스론과 함께 수록되었는데, 만약 이봉호(李鳳鎬)의 한자 표기가 오류이고 두 인물이 동일인물이라면, 이양하가 제임스 조이스론을 쓰면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이봉호 번역본을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 22) 이 작품은 이미 염형우(廉亨雨)가 『안해를 짓부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현대평론』 1(5)(1927.6.)에, 이흥로가 『사랑하는 그 안해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1932.2.13.-3.1.에 번역하여 실은 바 있다.
- 23) 저자인 '라옥스'는 외국인선교사로 당시 이화여전에서 영어 교수를 맡았던 블랑슈 라옥스(Blanche H. Laucks)로 보이며, 김상용 또한 당시 이화여전 교수였기 때문에 라옥스의 글을 받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 24) 작가이자 폴란드 펜클럽의 일원인 알렉산더 피스콜이 쓴 글로, 이미 『동아일보』에 『현대의 파란문화』이라는 제목으로 1939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바 있다. 『문장』에 실린 것은 1939년 11월호인데, 여기서는 일본 잡지 『지성(知性)』에 실린 것을 중역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지성』에 실려 있는 저자 소개까지

中國文學 五十年史 ²⁵⁾		이육사	23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國語文學史』, 北京文化學社, 1927.
『앙리·베르그송』의 藝術理論	T. E. 흠	-	25	T. E. Hulme, "Bergson's Theory of Art," <i>Speculations: Essays on Humanism and the Philosophy of Art</i> , Kegan Paul, Trench, Truner & Co., Ltd., 1924.
中國文學 五十年史		이육사	26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國語文學史』, 北京文化學社, 1927.

『문장』에 번역게재된 외국문학의 목록을 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평균적으로 2호당 1번꼴로 꾸준히 외국문학이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선정이나 역자의 경향성 등에 있어 뚜렷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기의 『인문평론』과 대비할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창간호부터 8호까지 ‘노벨상작가선’을 지속하며 외국문학(아나톨 프랑스, 펄 벅,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싱클레어 루이스, 셀마 라겔뢰프)을 소개한 『인문평론』은, 전술한 대로 외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이 도달해야 할 가치 개념으로서의 교양을 전파”하고자 했으며²⁶⁾ 창간호부터 꾸준히 그러한 경향성을 유지해 왔다. 또한 1930년대 들어 서양문학 이입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외국문학 연구자들이 “서구적 근대를 동시적으로 전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무엇보다 “세계문학의 권위를 담보한다는 노벨상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⁷⁾ 『인문평론』이 ‘노벨상작

함께 번역하였다. 다만 신문 연재본과는 번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1939년 10월에 『지성』에 소개된 이 글을 『동아일보』와 『문장』에서 제각기 따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를 중역한 것이므로 본래라면 3장에서 다루어야 하겠으나, ‘평론·학예란에 실려 있다는 점과 내용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 장에서 같이 다루었다. 아울러, 『지성』에 게재된 일본어 글은 야나가와 요스케 선생님(사이타마대학)께서 공유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5) 첫 게재 시에는 저자명이 나와 있지 않으나, 후스(胡適)의 저작이다. 이육사의 후스 문학사 번역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 의의는 홍석표, 『이육사의 후스(胡適) 문학사 저작의 번역과 구딩(古丁) 단편소설의 번역』, 『중국현대문학』 98,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21에 상세히 밝혀져 있다.

26) 서은주, 앞의 글, 272면.

가선 기획을 마련한 것에서도 이러한 번역을 통해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교양을 형성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작품 선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문장』의 경우 그와 같은 선명한 기획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우선 소개된 번역 작품들의 작가의 국적(아일랜드(2), 영국(3), 중국(3), 러시아(1), 캐나다(1), 핀란드(1))에서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1936년 신춘을 맞아 연재된 「세계문단점고」(『동아일보』, 1936.1.1. -11.)에서는 먼저 총설(總說)이 제시된 뒤 영국-독일-프랑스-미국-러시아-중국-일본 순으로 각국의 문단 경향이 소개되고 있고, 1938년 발간된 인문사의 『해외서정시집』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러시아 시가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⁹⁾ 외국문학 작품의 선별에 있어 기존에 조선에서 널리 읽혀 왔던 미국문학이나 불문학, 독문학이 없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적어도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세계문학’ 논의를 그대로 따르고 이른바 ‘권위’를 담보받은 작품을 소개하려는 기획이 『문장』에는 없었음을 보여준다.

역자 또한 하나의 경향성으로 묶어 말하기 어렵다. 당시 활발히 외국문학을 소개했던 『해외문학』 동인에 속하는 것은 정규창과 김상용뿐이고,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이자 『인문평론』에도 역자로 참여한 임학수, 이호근

27)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세계/민족,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60면.

28) 물론 문예지로서 외국문단과의 동시성을 고려한 기획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에 맞추어 그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거나 작품의 일부를 게재한 경우나(라옥스, 김상용 역, 「一九三八年度 노벨賞受賞者 퍼르르·빅女史」(1호, 1939.2.); 「『노벨』文學賞受賞者 『실란파아』의 業績」(12호, 1939.12.); F. E. 실란페에, 「실리아」(15호, 1940.3.)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제임스 조이스의 서거(1941)에 맞추어 그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한 경우(이양하, 「제임스·조이스」(25호, 1941.3.))가 있다. 이처럼 동시기의 이슈를 따르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획이 지속적으로 전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9) 최지현, 「세계문학의 번역과 근대 조선의 교양주의: 『해외서정시집』(1938)을 중심으로」, 『배달말』 73, 배달말학회, 2023.

(李皓根)이 있지만 이들도 『인문평론』에서의 활발한 활동과는 달리 『문장』에서는 한 번씩만 번역에 참여한 정도이다. 그밖에 임영빈(미국 남감리교대학), 양주동(와세다대학), 정래동(민국대학) 등 유학생 출신의 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특별한 경향성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밖에 오랜 기간 한시를 번역해 온 김억과 저명한 에스페란티스토 홍형의가 역자에 포함된다.

역자의 섭외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나, 이러한 역자들의 ‘비일관성’은 일차적으로 『문장』의 광범위한 필진 구성 전략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연구가 지속되면서 그 필진의 다채로움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200여 편을 상회하는 『문장』의 수필 필진이 도합 117명이며 그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도 문인/출판·언론인/학자/음악계/미술계/연극·영화계/의학계/종교계 등으로 다양함을 밝힌 장만호의 언급³⁰⁾이나 2~30년대 조선학 연구자들의 글이 당시 여러 조선학 연구 매체와 하나의 장에 연동되어 있다고 본 차혜영의 언급³¹⁾이 대표적이다. 이를 참조할 때, 이른 시기부터 조선문단에서 활동했던 김억이나 양주동, 임영빈, 『해외문학』 동인에 속하는 정규창과 김상용, 경성제대 출신의 임학수와 이호근, 특정 학파나 단체와는 무관하나 꾸준히 중문학 소개를 해왔던 정래동, 아나키스트이자 에스페란티스토였던 홍형의 등 어느 하나의 경향성으로 묶기 어려운 이들 역자들 또한 이러한 『문장』의 광범위한 필진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할 만하다.³²⁾

30) 장만호, 앞의 글, 334면.

31)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512면.

32) 비슷한 예로, 서승희는 최재서의 인문사 출판 기획을 탐구하면서 인문사의 필진들을 크게 ‘경성제대 출신 문인 및 학자’, ‘조선일보 인맥’, ‘외국문학 전공자’, ‘마르크스주의자로 분류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느슨한 연대”라고 칭한 바 있다(서승희,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158면). 비록 『문장』에 번역자로 참여한 이들이 모두 『문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잡지 제작 과정

잡지 차원에서 텍스트 선정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텍스트 선정부터 번역까지의 과정을 모두 이들 역자가 직접 했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 속에서 개별 역자들은 특정한 ‘기획’에 묶이지 않는, 오히려 각자가 기존에 해 오던 것과 유사한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 김억의 한시 번역이나³³⁾ 정규창의 솔로구프 번역,³⁴⁾ 임학수가 1938년 인문사 출간 『해외서정시집』에 이어 예이츠를 번역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기존의 문단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특한 작품이 번역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예이츠나 조이스, 헉슬리나 하디와 같은 작가들은 이미 조선문단에 소개되어 여러 차례 번역되었던 작가이고 특히 예이츠나 조이스의 경우 작가가 서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의성 또한 적절히 갖추고 있었던 반면, 아서 스트링저나 마틴 암스트롱, 옌량차이나 치쵸 마르 등은 기존에 번역된 바 없는 새로운 작가라는 점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표로 수렴되지 않고 독자들에게 읽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문장』에 실린 외국문학 작품이 의외의 정치적 효과를 낳는 사례로 홍형의가 번역한 치쵸 마르의 『추야』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빈가의 두 형제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읍내 지주 소유의 논에서 벼를 서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형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낮에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적군(赤軍) 게릴라(공산군)를 토벌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형은 수

에서 역자로 섭외할 수 있었고 또 그에 응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역자들은 『문장』과 ‘느슨한 연대’를 맺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그러한 ‘광범위한 필진’의 최대치가 어디였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논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출판사 혹은 잡지가 지니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면밀히 비교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지향성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김억의 한시 번역에 대해서는 이미 논고가 많으나, 『문장』에 실린 백거이의 『장한가』 번역 또한 7·5조 율격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25년부터 지속된 그의 한시 번역이 ‘격조시형’ 제언과 관련이 있다고 본 정기인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정기인, 『김억의 한시 번역과 “조선적 근대시”의 구상』,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34) 표도르 솔로구프는 러시아 소설가로, 정규창이 『衆明』 1-1 (1933.5.)에서 이미 그의 작품 『굴렁쇠』를 번역한 바 있다.

수밭 속에 숨어 있다가, 고리대금을 하면서 인근 소작인들을 괴롭혀 왔으며 지금은 마을의 연대장이 된 한가가 자신의 매부와 함께 근처에 와서 적군의 스파이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가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며 장시간 기다리던 형은 동생을 안심시키지만, 동생은 이미 몸이 차가워져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였고, 동생을 다독이며 형이 버를 베어가려던 찰나 돌연 정보가 울리고 그들은 총에 맞아 죽는다.

이 소설을 쓴 치초 마르(Cicio Mar)는 중국인 예진젠(叶君健, 1914~1999)의 필명으로, 그는 “1936년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나 1937년 7·7 사변 뒤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인물이며 “중국 최초의 국제문학잡지 『중국작가』를 창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중국 국민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린 작가이다. 번역과 창작 활동도 지속하였는데, 장혁주의 『꽃겨가는 사람들』을 [다카기 히로시(高木弘)의 에스페란토역을 매개로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에스페란토 소설집 『La Forgesitaj Homoj(잇힌 사람들)』을 발간(1937)하기도 한다.³⁵⁾ 이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Julia Nokto(7월의 밤)』을 홍형의가 『秋夜』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인데, 홍형의 또한 아나키스트이자 에스페란티스토로 순에스페란토 잡지 『Korea Esperantisto』를 발행하다가 1939년 3월 폐간된 뒤 일본경찰에 피검되기도 하는 등의 약력을 가지고 있다.³⁶⁾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사회비판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이 소설이 『문장』에 발표된 것을 통해 외국‘문학’의 번역이 담아낼 수 있는 정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게재는 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이루어진 ‘번역’의 기획은 도리어 조선이 배우거나 모방해야 할 ‘세계문학’이라는 테제 내지는 당대 공유되었던 ‘세계문학’(미국, 독일, 프랑스문학)의 이미지에 흡수되지 않는 다양

35) 예진젠, 장정렬 역, 『잇힌 사람들』, 진달래, 2023, 6면.

36) 김삼수, 『한국에스페란토운동사(1906~1975)』,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6, 152면.

한 국가의 여러 문학작품을 신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화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결과로 발표된 홍형희의 치초 마르 작품 번역이 갖는 저항성은 『문장』의 정치성에 대해 재고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³⁷⁾

3. ‘좋은 전쟁문학’과 ‘보고문학’ 사이에서: ‘전선문학선’

『문장』에 수록된 ‘전선문학선’을 비롯한 당시의 중일전쟁 관련 시평들, ‘국민문학’ 관련 논의들은 국가총동원 체제하 문예잡지의 대응 양상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들을 낳았다. 가령 하재연은 ‘전선문학선’의 내용 분석을 통해 『문장』 편집진이 전쟁문학의 군국주의적 정신보다는 휴머니티 쪽에 감응하였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휴머니티’의 강조가 오히려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고도의 방식으로 매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짐을 강조함으로써, 『문장』이 “전시하의 ‘국민문학’과 독자적인 개성을 지니는 조선의 국민문학 건설이라는 화해하기 어려운 이중 과제 속에 처해 있”었다고 보았다.³⁸⁾ 반대로 이상경은 『문장』이 ‘전선문학선’을 연재하는 가운데에도 중국 작가의 항일문학을 신거나 반전문학의 필요성을 개진하는 글들을 동시에 게재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문장』의 저항의 흔적을 살폈다.³⁹⁾ 이 두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잡지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당대 잡지 편집에 있어 강력한 통제로 작용하던 ‘검열’의 문제

37) 다만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추가적인 기록을 『문장』 내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러한 평가는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과, 주요 편집진과 역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해명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8) 하재연, 앞의 글, 479~484면.

39) 이상경, 앞의 글.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편집자였던 이태준을 비롯해 1930년대 신문 학예면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저널리즘과 검열의 관계를 경험해 온 작가들에게 있어 검열은 손쉽게 비판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문학의 지면을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었다. 더구나 중일전쟁기에 들어서며 식민당국은 “금지하는 검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체제에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검열”로의 이행을 요구했고, 이러한 “장려하는 검열”의 국면은 글쓰기 행위 및 그 제반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그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통제·생산·유통하는 형태로 포섭해나갔다.”⁴⁰⁾ 그런데 조선어 잡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이러한 통제 국면을 표면적으로 따르면서도 그러한 억압을 돌파하며 문학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지향만큼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서는 난점 또한 많았던 듯하다. 『문장』이 발간되던 시기에 ‘전쟁문학’, ‘신체제하의 문학’, ‘국민문학’ 등은 (작가들 개개인의 예술적 목표 성취와 별개로) 비평 담론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는데,⁴¹⁾ 시국에 협력하는 문학을 하라는 제국의 요구는 항상 (조선 작가로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가령 중일전쟁 개전 후 일본의 신문·잡지사에서 작가들을 특파원으로 보내거나, 내각정보부에서 ‘펜부대(ペン部隊)’를 파견(1938)함으로써 많은 작가들이 종군한 뒤 그 경험을 남기는 가운데, 1940년 『문장』의 신춘좌담회에서는 ‘전쟁문학’이 화두로 제시되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직접 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⁴²⁾

40) 이종호, 『검열의 상전이(相轉移), ‘친일문학’이라는 프로세스』, 한기형 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323~325면.

41) ‘전쟁문학’을 예로 들면, 조선에서는 1938년 말부터 전쟁문학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잡지를 통해 표출되기 시작한다. 정선태,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론과 종군문학: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의 〈참고문헌〉 참조.

42) 이태준이 “지금 전쟁이란 이 커다란 세계적 동태를 우리도 피안시키고만 있을 수는

이러한 시대배경 가운데, 『문장』에는 2호부터 17호까지 거의 매호 중일전
쟁과 관련한 문학 텍스트를 선별하여 게재하는 ‘전선문학선’이 실리게 된
다. 이 기획의 의도나 기획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
며, 다만 박광현이 “굳이 편집 의도나 번역자 등을 밝히지 않은데서 알
수 있듯이” “경무국의 의도에 따른 기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한 바
있는 정도이다.⁴³⁾ 그러나 누가 주체가 되어 왜 이러한 지면을 마련했는가
에 대해서는 우선 차치하고,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자의적이든 그렇지 않은 ‘전쟁문학’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었던 당시에 ‘전선문학선’으로 ‘선(選)(별)’할 수 있는
텍스트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참조되었는가의 문제인 것
이다. 아래는 ‘전선문학선’에 실린 텍스트의 목록과 그 번역 저본이다.

없는데” “우리들도 전쟁내용의 작품을 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임화는
“가서 봐야 쓸 수 있지요. 경험 없이는 묘사 못 합니다”, 김기림은 “직접 작가가 전쟁
에 참여하거나 혹은 전쟁 현지(現地)에서 당하거나 해야 하지요”, 유진오는 “두 사람
이 씀 하는 것을 묘사할 제두 보고나서 쓰면 생생하게 쓸 수 있는데 더구나 전쟁이라
는 방대한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쓸 수는 없겠지요”라고 하며 공통적으로 전쟁문학
집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신춘좌담회: 문학의 제문제』, 『문장』(13호, 1940.1.),
193면). 이와 같이 ‘참전하지 않았기에 쓸 수 없다’는 발화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문학
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잡지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제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전쟁문
학이나 국민문학을 둘러싼 제국의 요구 아래 작가들은 그것을 계속 화두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 43) 박광현, 앞의 글, 2008, 406면. 조용만 또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문장』은
마지막호 ‘전선문학선’ 같은 것을 실어 오다가 마침내 일본 작가 사토 하루오의 ‘문화
개발의 길, 이토 세이의 ‘국민 문학의 기초’ 같은 글을 신계 되자 드디어 1941년 4월
사고(社告)로 “본지 文章은 국책에 순응하여 제3권 4호로 폐간합니다”고 잡지 발간을
끝내버렸다.”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범양사,
1988, 290면.) 이러한 회고는 ‘전선문학선’이 당국의 압박에 의해 실린 것임을 명확히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압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고찰이 필요하다.

〈표 3〉 ‘전선문학선’에 수록된 작품 목록

제목	작가	호수	추정 번역 저본 (번역된 부분은 □ 안에 표기)
火野葦平作「흙과 兵隊」에서	히노 아시헤이	2	火野葦平, 『土と兵隊』, 改造社, 1938. [147~150면]
火野葦平作「담배 와 兵隊」에서	히노 아시헤이	2	火野葦平, 『廣東進軍抄 附・煙草と兵隊』, 新潮社, 1939. [233~236면]
林芙美子作「戰 線」에서	하야시 후미코	2	林芙美子, 『漢口戰從軍通信』, 『戰線』, 朝日新聞社, 1938. [179~183면, 193~195면]
별밤던하로밤	하야시 후미코	3	林芙美子, 『戰線』, 朝日新聞社, 1938. [149~151면]
敵前上陸	히노 아시헤이	3	火野葦平, 『土と兵隊』, 改造社, 1938. [61~68면]
大部隊의敵	徳永進	3	미상
上空一五〇〇米	오자키 시로	4	尾崎士郎, 『第一線に立つ』, 『文學部隊』, 新潮社, 1939. [195~200면]
特務兵隊	가나베 우시히코 ⁴⁴⁾	4	木鍋牛彦, 『中間部隊』, 『大陸』, 1939.4. [269면]
戰場の道德	하야시 후미코	4	林芙美子, 『戰線』, 朝日新聞社, 1938. [29~31면]
觀戰	니와 후미오	5	丹羽文雄, 『還らぬ中隊』, 『中央公論』, 1938. 12.~1939.1. [1938년 12월호의 66~67면]
陸軍飛行隊	오자키 시로	5	尾崎士郎, 『戰場雜感』, 『文學部隊』, 新潮社, 1939. [205~208면]
建設戰記	우에다 히로시	5	上田廣, 『建設戰記: 或る分隊長の手記』, 『改造』, 1939.4. [107~108면]
駐屯記	다케모리 가즈오	8	竹森一男, 『駐屯記』, 『文藝』, 1939.5. [60~61면]
非戰鬪員	오자키 시로	8	尾崎士郎, 『戰場ノート』, 『文學部隊』, 新潮社, 1939. [312~313면]
匪賊	이나무라 류이치	8	稻村隆一, 『海南島記』, 『改造』, 1939.5. [181~182면]
病院船	세리자와 고지로	8	芹澤光治良, 『眠られぬ夜』, 『文藝』, 1939.6. [151~152면]
東洋의南端	히노 아시헤이	9	火野葦平, 『海南島記』, 『文藝春秋』 17(7), 1939.4.; 『海南島記』, 改造社, 1939.5. [71~75면]
蘇聯機空襲	호소다 다미키	9	細田民樹, 『大興安嶺を越えて』, 『改造』, 1939. 8. [388~389면]

달과 닭	히노 아시헤이	10	火野葦平, 『海南島記』, 改造社, 1939. [195~198면]
湖沼戰區	오에 겐지	10	미상 ⁴⁵⁾
戰場の正月	히노 아시헤이	11	火野葦平, 『花と兵隊』, 改造社, 1939. [3~6면]
將軍의 얼굴	오자키 시로	11	尾崎士郎, 『戰場雜感』, 『文學部隊』, 新潮社, 1939. [211~213면]
戰場の正月	히노 아시헤이	12	火野葦平, 『花と兵隊』, 改造社, 1939. [7~9면]
戰場雜感	오자키 시로	12	尾崎士郎, 『戰場雜感』, 『文學部隊』, 新潮社, 1939. [207~211면]
戰線	하야시 후미코	12	林芙美子, 『戰線』, 朝日新聞社, 1938. [113~114면]
戰場の正月	히노 아시헤이	13	火野葦平, 『花と兵隊』, 改造社, 1939. [71~73면]
散文詩	오자키 시로	14	尾崎士郎, 『戰場ノ一ト』, 『文學部隊』, 新潮社, 1939. [316~321면]
戰線	하야시 후미코	15	林芙美子, 『戰線』, 朝日新聞社, 1938. [3~7면, 9~11면]
밤의火線	세빙잉 ⁴⁶⁾	16	謝冰瑩, 中山樵夫 역, 『女兵』, 三省堂, 1940 [76~79면]; 원서는 『新从軍日記』, 1938.
文學部隊長	세빙잉	16	謝冰瑩, 中山樵夫 역, 『女兵』, 三省堂, 1940[232~236면]; 원서는 『新从軍日記』, 1938.
恐怖의 一日	세빙잉	17	謝冰瑩, 中山樵夫 역, 『女兵』, 三省堂, 1940 [93~95면]; 원서는 『新从軍日記』, 1938.
防空壕內에서	저우원	17	周文, 『重慶被爆筆記(支那作家報告文學)』, 『中央公論』, 1940.4.[282면]; 원문 미상.
『보리와兵丁』에서	히노 아시헤이	24	히노 아시헤이, 니시무라 신타로 역, 『보리와 병정』, 조선총독부, 1939; 원서는 『麦と兵隊』, 改造社, 1938. ⁴⁷⁾

44) 원문이 실린 『대륙』에서는 ‘북지파견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또한 서문에 따르면, 이 글은 중지군(中支軍, 중지나 파견군)에 속한 중간부대(상황에 따라 최전선과 후방 양쪽을 오가는 특수부대)의 한 병졸이 적지에 상륙한 후부터 8개월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견문기라고 한다.

45) 『문장』에 실린 『호소전구』의 번역 저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이후 1940년 단행본으로 발간된 『호소전구』(大江賢次, 『湖沼戰區』, 河出書房, 1940)의 8~11면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46) 세빙잉(1906~2000)은 근대식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봉건적 풍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중앙군사정치학교에 입교, 제1차 국공합작 시기 북양군벌과의 전쟁에 참여하거나 중일전쟁 시기 국민당에 입대하여 항일전쟁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작가로, 그

목록을 보면 10호까지는 상당히 많은 작가들의 글이 선별되어 실린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는 1937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히노 아시헤이나 『방랑기』 등으로 이미 조선에서도 알려져 있던 하야시 후미코, 펜부대로 파견된 오자키 시로나 니와 후미오 등도 있었으나 당시 잘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한 편이지만 전문 작가가 아닌 군인의 수기 또한 실려 있다.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당시 발간되던 단행본 또는 『대륙』, 『중앙공론』, 『문예』, 『문예춘추』 등 당대 문예지에 실린 작품을 큰 시차 없이 번역했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이다(이른 것은 바로 이전 달 잡지에 실린 것을, 늦다 하더라도 최대 반 년 정도 전의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

또한 모든 작품이 초역(抄譯)이라는 점, 작가나 작품에 대한 소개가 일절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점에서 ‘전선문학선’은 전문을 번역하거나 이따금씩 작품·작가 소개를 겸하는 ‘외국문학’ 번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자로서는 발췌된 부분을 읽어도 작품이 주요 서사나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군부대의 생활이나 전장의 분위기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 내지는 하나의 장면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인데, 가령 8호에 실린 세리자와 고지로의 『잠 못드는 밤』은 『문예』에 게재된 것을 기준으로 약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오쓰 준이치(大津順一)라는 제대 법과 출신의 병사가 전장에서 겪은 두려움이나 괴로움

인생역정을 그린 『여병자전』으로 유명한 작가이다(최진석, 『근대/중국/여성의 자기 서사와 1940~1960년대 한국의 중국 이해: 세빙잉(謝冰瑩) 자서전의 수용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74면). 저우원(1907~1952)은 중국좌익작가연맹 소속의 작가로, 『문장』 14호(1940.2.)에 실린 『스크랩스: 지나향전 작가의 행방』에서는 “성도첩보(成都捷報)의 부간(副刊) 『문강(文崗)』의 편집을 맡어보고 있다”는 소식이 한차례 전해진 바 있다.

- 47) 이미 총독부 통역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 때문에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西村眞太郎氏譯에의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니시무라 신타로의 『보리와 병정』 번역 경위에 대해서는 박광현, 앞의 글 참조.

등의 감정을 술회하는 형식의 소설이지만, 『문장』에 인용된 것은 그와 거리가 먼, 연재된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짧은 부분에 불과하다.

오전 10시에 기관차의 정리가 끝났다. 문어귀에는 잔뜩 토낭(土囊)을 갖다 쌓았으나, 浮山 소위는 종시 문 근처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하루 종일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떠들어댔다. 유탄도 오지 않아서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강가로 나가기도 하고 잔디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하였다. 네시쯤 되어, 병원선이 내지에 귀환할 터이니 편지를 쓰고 싶은 자는 병원선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병사들은 잔디 위에서 소학생이 사생하는 듯한 자세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인용된 분량이나 내용에는 작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전체 작품의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실린 작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령 단일 작품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오자키 시로의 『문학부대』(6회)의 경우 작가인 오자키가 펜부대의 일원으로서 한커우(漢口) 공략전에 참전했던 중군기를 모아놓은 단행본인데, 한커우에서 겪은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주요 서사보다 대개 그때 그때 떠오르는 단상들을 모아놓은 「전장잡감」이나 「전장 노트」의 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문학’을 소개한다고는 하지만, 텍스트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전문을 번역하거나 줄거리를 제공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 ‘전선문학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소설에서 ‘묘사’를 중점적으로 발췌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을 취한 의도 여하와는 별개로, 전쟁문학에 대한 당대 조선에서의 인식과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쟁과

문학이라는 주제를 두고 『삼천리』에서 김동환·김기진·박영희가 나누었던 좌담에서, 박영희는 히노 아시헤이의 소설이 “전쟁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전쟁하면서 쓰는 작품”, 즉 기록문학 내지는 보고문학이라고 평하고 있으며, 김기진 또한 전쟁문학을 창작 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때 히노의 작품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어 단순한 감정과 정열로만 전쟁을 구가하던 시기에 창작된 것과 전쟁 중을 기록한 리porter 문학 시기에 창작된 것에 해당한다고 평한다.⁴⁸⁾ 또 백철과 이현구는 모두 ‘보고문학’이 아니라 “객관적 거리를 갖고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야” 제대로 전쟁문학이 쓰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⁴⁹⁾ 이처럼 일본에서 발표되는 전쟁문학이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문학’에 그칠 뿐이라고 논평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장』의 전선문학선이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이나 줄거리와는 무관한) 짙막한 장면을 증점적으로 초역하는 것은 그러한 평가와 상응하는 면이 있다. 요컨대 작품의 부차적인 부분이 주로 제시됨으로써, 전선문학선으로 게재된 소설들을 전쟁문학으로서 충분한 작품성을 갖춘 소설이 아니라, 당대의 논평들과 결합하여 단순한 ‘체험기’에 불과한 것으로 읽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불어 다수의 작품이 일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다는 점은 특히 중국 작가의 글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 17호에 실린 저우원의 『충칭피폭격기』는 본래 『중양공론』에서 “지나(支那) 일류 작가의 보고문학”으로 소개된 것인데, 특히 원문에 실린 소개글에서는 항일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⁵⁰⁾ 이치

48) 『『戰爭文學』과 『朝鮮作家』: 戰爭과 文學과 그 作品을 말하는 座談會』, 『삼천리』, 11-1, 1939.1.

49) 정선태, 앞의 글, 136면. 백철과 이현구는 각각 백철, 『일본문학상의 전쟁』(『조광』, 1939.2.); 백철, 『전쟁문학일고』(『인문평론』, 1939.10.); 이현구, 『전쟁과 문학』(『문장』, 1939.10.) 등에서 ‘좋은’ 전쟁문학과 일본의 ‘보고문학’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50) “항일측이 아무리 엄폐하려 해도 미처 숨길 수 없는 것은 패전과 무질서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군의 정확무비(正確無比)한 작전과 폭격에, 충칭은 이제 문자 그대로

럼 일본에서 중국 작가의 항일문학이 번역된 것은 “본래 중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솔직한 필치를 동원한 항일문학’을 “중국의 패배에 대한 ‘자백’으로 독해한 결과”, 즉 “제국일본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는 중국어 텍스트로 해석 또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읽은 결과”이다.⁵¹⁾ 중일전쟁기에 중국인 작가가 쓴 작품을 선택하여 『문장』에 실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텍스트들이 이미 일본에서 한 차례 ‘전쟁 수행에 기여하는’ 텍스트로 번역된 바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일본의 번역(검열 제도의 승인)을 경유하여 오히려 원래 중국에서 이 글이 발표된 의도대로 중일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전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문장』의 ‘전선문학선’은 이미 일본에서 발표된 전쟁문학을 번역한 것이되 극히 일부만 발췌하여 번역하거나 중국 작가의 글을 번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본래 텍스트가 발표된 일본에서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4. 식민지 미디어에서의 검열과 번역: ‘SCRAPS’ 및 시국 관련 글

『문장』 13호부터 18호까지에는 ‘SCRAPS’라는 난이 꾸러지는데, 여기에

빈사 상태이다. 호흡이 곧 끊어질 듯한 국민들을 마구 휘몰아 다시 항전을 계속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영수(領袖)란 말인가. 자국의 작가에 의해 남김없이 그려진 이 고민의 모습을 보라. 한간(漢奸)(적과 내통하는 사람—인용자주) 공포병에 싸우기 전에 일본의 진의를 조용히 생각해 항전의 우(愚)를 깨닫는다면, 굳이 이러한 참혹한 고통을 볼 필요가 있을까. / 필자 저우원은 병사 출신의 일류 작가로 많은 장·단편이 있지만, 이 글은 보고문학으로서 올해 1월 상하이의 모 잡지에 실린 것으로, 지나(支那) 오지의 민중이 어떻게 항일정권의 야망의 희생이 되어 있는지, 또 그들 문학자 동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周文, 「重慶被爆擊記(支那作家報告文學)」, 『中央公論』, 1940. 4., 번역은 필자.

51) 최진석, 앞의 글, 80면.

52) 이상경은 이러한 ‘전선문학선’의 활용을 『문장』의 저항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상경, 앞의 글, 150면.

는 구미 작가들의 글 중 일부가 말그대로 ‘스크랩’의 형태로 실려 있다. ‘전선문학선’에 수록된 두 중국인 작가의 글 모두 일본 잡지를 경유해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SCRAPS’란에 게재된 글들 또한 그 다수가 이미 일본어 잡지들에 한차례 번역되어 실린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모든 글들이 명확히 일본어 중역임을 밝힌 것은 아니나 몇몇 글들의 말미에 일본어 잡지의 중역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수의 글들의 저본이 비슷한 잡지들에 실려 있으며 대개 한두 달 뒤에 『문장』에 번역되는 것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금지하는 검열”에서 “장려하는 검열”로 이행하던⁵³⁾ 시기에 불가피하게 전쟁 내지는 시국과 관련된 글을 게재해야 했을 때, 『문장』은 그러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동시기에 발간되던 일본어 잡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표 4〉 ‘SCRAPS’에 수록된 글의 목록

제목	작가	호수	추정 번역 저본 (초역의 경우 번역된 부분을 Ⅱ 안에 표기)
포울·니장會見記	앙드레·유르망	13	안드레·ユルマン, 『ボオル・ニザンと語る』, 『セルパン』, 1939.3., 140~141면.
小説과歴史	우라지밀·웨드레	13	ウラジミール・ウエドレ, 『小説と歴史』, 『セルパン』, 1939.10., 85~87면. [85~87면]
戰爭과 讀書	E·M 포오스터	14	E. M. フォースタ, 『戦争と讀書』, 『文藝』 8(1), 1940.1., 98~103면. [102~103면]
文學者는무엇을 써야할까	세실·코놀리	14	セシル・コノリイ, 『文學者は何を書くべきか』, 『セルパン』, 1940.1., 66~67면.
一九三〇年代の文學	말캄 카우리이	15	マルカム・カウリイ, 『一九三〇年代の文學』, 『セルパン』, 1940.2., 25~29면. [28~29면]
理性人	말캄·카우리이	15	マルカム・カウリイ, 『科學者への晩鐘』, 『セルパン』, 1940.1., 80~83면. [81면]
니이체	하인리히·만	16	H・マン, 『ニイチエ』, 『文藝』 8(3), 1940.3., 100~104면. [100~101면]

53) 이종호, 앞의 글, 325면.

戰線에나가면서	앙드레·모오로와	17	안드레·모오로와, 『戰線に赴くにあたり』, 『知性』 3(4), 河出書房, 1940.4., 52-55면. [52-54면]
感傷文化	피에르·마콜랑	17	비에ール·마쵸를랑, 『感傷文化の愁訴』, 『中央公論』, 1940.4., 216-222면. [221-222면]
사람의얼굴에對 하야	알랭	18	알랭, 『人間の顔について』, 『文藝』 8(6), 1940.6., 111-113면.
文學과『히로이즘』	장·캣수우	18	ジャン・カッスウ, 『文學とヒロイズム』, 『セルパン』, 1940.6., 38-39면. [38면]

선행 연구에서는 SCRAPs로 수록된 글들을 ‘외국문학’과 연결지어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번역의 형식(일본어 중역)이나 번역의 저본이 실려 있는 잡지들의 유사성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이는 ‘전선문학선’을 비롯한 시국 관련 글의 번역과 같이 보아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 년 남짓한 기간 마련되었던 SCRAPs란에는 ‘앙드레 유르망[앙드레 위만(André Ulmann)], ‘앙드레 모오로와[앙드레 모루아(André Maurois)], ‘피에르 마콜랑[피에르 마코를랑(Pierre Mac Orlan)], ‘알랭[에밀 샤르티에, 필명 알랭(Alain)], ‘장 캣수우[장 카수(Jean Cassou)](이상 프랑스), ‘E. M. 포오스터[에드워드 포스터(Edward M. Forster)], ‘세실 코놀리(본명 불명)⁵⁴⁾(이상 영국), ‘말컴 카우리이[말콤 카울리(Malcolm Cowley)](미국),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독일), ‘우라지밀 웨드레(본명 불명) 등, ‘외국문학’ 번역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웠던 미국, 프랑스, 독일 작가들의 글들이 다수 수록된다. 조사 결과 이 글들은 모두 일본 잡지에도 실려 있었음을 확인했는데, 각 잡지와 『문장』의 발간 시기를 고려할 때 ‘전선문학선’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일본 잡지에 게재된 글을 큰 시차 없이 번역해서 실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글의 일부를 초역(抄譯)한 점도 ‘전선문학선’과의 공통점이다.

54) 이상경은 세실 코놀리가 맥락으로 보아 영국의 문예평론가 시릴 코놀리(Cyril Connolly, 1903-1974)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경, 앞의 글, 148면.

SCRAPS에 실린 글들은 어느 정도 『문장』에 실린 다른 글들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13호에 실린 「소설과 역사」가 그러하다. 역사소설이 대중적으로 성행하는 가운데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소설의 소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식과 소설적 상상력이 잘 융화된 역사소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 글은, 『문장』에서 이미 몇차례 다루어졌던 ‘역사소설’ 문제와의 연속성 속에서 독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한편 SCRAPS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문학과 정치’라는 화두를 던지는 다소 정치성이 강한 글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상경이 한차례 주목하였듯 14호에 실린 두 글은 각각 작가가 전쟁기에 무엇을 ‘읽고’ ‘써야’ 하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⁵⁶⁾ 포스터의 「전쟁과 독서」가 전쟁기에도 평시와 마찬가지로 독서를 계속할 것이며 특히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현하의 시국에 광채를 던지는 내가 구하고 있던 것”임을 언급하는 반면, 세실 코놀리의 「문학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는 전쟁기에 작가가 전쟁으로부터 손을 떼어 ‘도피가’로서의 소설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마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의 작가들에게도 전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시점, 종군을 앞둔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의 글을 실은 것 또한 다분히 시사성을 띈다. 모루아의 글은 『지성』 1940년 4월호에 마련된 「싸우고 있는 유럽의 지성들(戦つてゐる歐洲の知性たち)」 특집 하에 수록되었는데, 출정 나흘 전 작가로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두세 페이지라도 소설을 더 써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글이다.

그밖에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쓰지 않은 글들 중에서도 전쟁 혹은 시국, 정치에 대한 작가의 대응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55) 현진건의 「역사소설문제」(12호, 1939.12.), 서인식의 「역사와 문학」(9호, 1939.9.) 등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박종화의 「역사소설과 고증」(20호, 1940.10.), 안희남의 「통속소설의 이론적 검토」(21호, 1940.11.)에서 역사소설의 통속성을 지적한 바 있어, 역사소설이 과연 문학성을 지닐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 시기 여러 차례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56) 이상경, 앞의 글, 148면.

있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공산당원이었던 ‘폴 니장’(폴 니장(Paul Nizan))을 인터뷰하는 저널리스트 앙드레 위만의 글에서는, “내가 ……[‘공산주의자’로 추정—인용자주이라는 것과 내가 소설가라는 것이 양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중략) …[‘공산주의’로 추정—인용자주은 소설가의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인식의 방법이요 …은 인식과 실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설파하는 구절이 실리기도 한다.⁵⁷⁾

그밖에도 진보적 성격의 매체인 *The New Republic*의 편집을 맡았던 미국 소설가 말콤 카울리가 발표한 1930년대의 문학을 평하는 글(『1930년대의 문학』), 현대 지식인의 보수성을 비판한 글(『과학자애의 만종. 『문장』에는 매우 짧은 부분만을 인용하여 『이성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독일 출신이지만 나치스에 의해 국적을 박탈당한 뒤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하인리히 만이 쓴 글⁵⁸⁾ 등을 실은 것은 일본 잡지를 경유해서나마 불안정한

57) 폴 니장은 문학을 “인식의 도구”로 보며,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소설은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소설의 예술로서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의무를 앞세우는 견해”이다(오은하, 『폴 니장, 1930년대 작가의 갈등과 선택』, 『불어불문학연구』 109,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121면). 오은하의 논문에서는 폴 니장의 다른 인터뷰에 실린 구절 “Le communisme, comme toute expérience profonde, sert le romancier; précisément parce que le roman est instrument de connaissance et le communisme méthode de connaissance et d’expérience. (공산주의는 모든 심오한 경험이 그러하듯 소설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설이 인식의 수단이고 공산주의는 인식과 경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도 인용되어 있다(위의 글, 같은 곳에서 재인용). 이 점을 고려하면 말줄임표로 복사처리된 것은 ‘공산당원’ 또는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말로 추정된다. 덧붙여 이 복사처리는 일본어 원문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

58) 이 글은 ‘두 형제 망명작가에 대해’라는 제목하에 실린 하인리히 만, 토마스 만 형제와 스테판 츠바이크, 아놀드 츠바이크 형제의 글들 중 하나이다. 특히 이 니체론은 15개국어 참가한 국제출판계획회의 총서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번역의 저본은 뉴욕 롱맨스사(Longmans, Green & Co.)에서 출판된 ‘살아있는 사상’ 총서(living thoughts library)의 한 권이라고 일본어 원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더불어 원문에서는 미국판 총서의 취지 중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현대의 지식인이 자신의 지식이 나 신념으로 포화(飽懷)하고 있는 사상은 지금으로부터 백 년 또는 천 년 전에 반역적

시국 가운데 당대 구미 작가들의 반응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번역된 글들의 목록을 살펴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세르팡(セルパン)』이라는 잡지에서 상당수의 글이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이 성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꺼내 읽었던 잡지로 알려져 있는 『세르팡』⁵⁹⁾은, 1931년 창간된 “서양의 최신 모더니즘 예술을 다룬 고급 문예지”⁶⁰⁾로 평가된다. 번역문학작품이나 미술 등을 다루는 소책자로 출발해서 1932년에는 시사 평론, 해외소식 등을 다룬 페이지를 더해 종합잡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1934년부터는 페이지를 대폭 늘려 정치·경제·교육의 내용을 추가, 「군축 특집호」, 「의무교육문제 임시중간호」, 「해외정보 특집호」 등을 마련하기도 한다. 1939년 8월호에서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번역으로 잡지의 3분의 2를 채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무렵부터 구미열강의 동향을 전하는 비중이 높아진다.⁶¹⁾ 이와 같이 『세르팡』은 1930년대 말에 이르러 문예지보다는 시사정보지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부터 종합잡지로서 빈번히 읽혀 온 『개조』나 대중지 『대륙』, 문예지 『문예』와 등을 출간한 개조사와 같은 대형 출판사가 “중국 대륙을 향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거나 “전쟁문학”을 적극적으로 출간하면서 “전간기(戰間期)로부터 전시기에 걸쳐 ‘사회문제’나 아시아를 말하는 미디어의 선두에 서서, 아시아·대륙에 대한 관심·욕망을 환기하는 ‘제국’

인 사람들이 당시 시대와 싸워서 창조하고 옹호했던 문화유산이다. / 지금 모든 시대와 나라들의 위대한 작품을, 현대의 사상가가 증류(蒸溜)하고 해설한 정수—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구하는 바일 것이다.”

59) 이상, 「첫번째 방랑」, 『이상 전집 4: 수필』, 태학사, 2013.

60) 이병수, 「이상(李箱)의 시 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와 탈 지방성」, 『비교문화연구』 5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3면.

61) 『세르팡』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한성례, 「이상이 언급한 『세르팡』 소재 「암살당한 시인」과 「암고양이」」, 『이상리뷰』 10, 이상문학회, 2015와 함께, 1998년 발행된 『セルパン/新文化: 国立国会図書館所蔵(復刻版)』(アイアルディー企画)의 서적 소개를 참고하였다.

의 미디어가 되어” 가는 가운데,⁶²⁾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구미 문화를 수입해 온 『세르팡』의 기사를 『문장』이 여러 차례 번역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1940년대 말부터는 ‘전선문학선’이나 ‘SCRAPS’와 같이 고정된 난에 게재되지 않는, 시국 관련 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다음 목록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글들의 저본 또한 『세르팡』이나 『신초(新潮)』 등으로, ‘SCRAPS’ 번역의 저본이 실린 잡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5〉 기타(특별한 표지 없음) 번역 텍스트 목록

제목	작가	호수	추정 번역 저본 (초역의 경우 번역된 부분을 Ⅱ 안에 표기) ⁶³⁾
支那抗戰 作家의 行方		14	미상 (중국 신문 『신보』에서 실었다는 부기가 있으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文化と闘争: 東亞의 新理念	아베 도모지	17	阿部隆二, 「文化と闘争」, 『セルパン』, 1939. 11., 1~5면. [1~4면]
歸國해서	임어당	18	林語堂, 「支那へ歸る」, 『セルパン』 1940.6., 46~49면. [47~48면]
作家의政治的 關心		18	「現在の政治的關心について」, 『新潮』, 1940.1.
日支文化提携에의 길	히라노 요시타로	18	平野義太郎, 「日支文化提携への道」, 『セルパン』 1940.6., 10~12면. [10~12면]
襄東作戰後軍記	오사라기 지로	19	大佛次郎, 「襄東作戰從軍記 宜昌」, 『文藝春秋』 18(11), 1940.8., 226~238면. [232~238면]
佛印援蔣 루우트 報告	중자	19	仲子, 「事變下の海防・昆明ルート報告」, 『セルパン』 1940.8., 60~65면[61~64면]; 원문은 仲子, 「抗战西南透視录」, 『兴建』 第2卷 第2期, 1940.5.; 仲子, 「西南抗战透視录」, 『兴建』 第2卷 第3期, 1940.6.
文化開發의길	사토 하루오	20	佐藤春夫, 「文化開發の道」, 『新潮』 36(3), 1939.3. ‘한 명의 문학자로서의 대지나 방책 (一文學者としての對支方策)’ 특집으로 수록.

62) 요네타니 마사후미, 장문석 역, 「‘제국’의 미디어와 문화공작의 네트워크: 중일전쟁기의 문화항쟁」, 『동아문화』 5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21, 173~174면.

興亞建國의特殊性和普遍性	전원	20	田原, 『興亞建國の特殊性と普遍性』, 『セルバン』 1940.4., 14~16면; 원문은 田原, 『興亞建國之特殊性与普遍性』, 『兴建』 第1卷 第4期, 1940.1., 37~39면.
日獨伊同盟의意義	스즈키 구라조	21	미상
文藝의新體制	곤 히데미	21	今日出海, 『文藝の新體制について(上)/要は精神にある』, 『朝日新聞』, 1940.9.25.; 『文藝の新體制について(下)/強力な統合へ』, 『朝日新聞』, 1940.9.26.
國民文學의基礎	이토 세이	22	伊藤整, 『國民文学の基礎』, 『文藝』 8(12), 1940.12., 146~148면.
新體制와文化人	시미즈 이쿠타로	22	清水幾太郎, 『新體制と文化人』, 『日本評論』, 1940.9., 96~98면.
鬭爭의日記	겟베르츠	22	佐々木能理男 譯, 『鬭爭より建設へ ゲッベル스의日記』, 『セルバン』, 1940.11., 2~32면. [2~10면]
鬭爭과藝術	요-제프 겟베르츠	23	ゲッベルス, 『戰爭と藝術は矛盾しない』, 『文藝』 8(10), 1940.10., 182~186면.
國民文學이란 무엇인가	사카키야마 준	23	榊山潤, 『國民文学とは何か』, 『文藝』 8(12), 1940.12., 142~146면.
對外文化宣傳의政治性	마츠오카 고이치	23	미상

1940년 후반에 이르러 『문장』은 ‘장려하는 검열’을 다분히 의식하면서 위 목록과 같은 시국과 관련된 글을 지속적으로 번역, 게재해 나간다. 여기에는 당시 육군성 정보부 소좌였던 스즈키 구라조(鈴木庫三)의 『일독이 동맹의 의의』, 나치당 최고선전가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투쟁의 일기』, 『전쟁과 예술』⁶⁴⁾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자(仲子)나 전원(田原)

(63) 이 표의 내용 중 오사라기 지로와 곤 히데미 글의 원전은 도재현 선생님(서울대 박사과정)께서 찾아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64) 『세르팡』 1940년 11월호에는 ‘투쟁에서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괴벨스의 일기 『Vom Kaiserhof zur Reichskanzlei』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1932년 1월 1일부터 1933년 5월 1일까지의 일기 중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한 것인데, 『문장』에서 ‘투쟁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중역한 것은 1932년 12월 24일까지의 부분에 해당한다. 또 ‘전쟁과 예술’은 괴벨스가 뮌헨 ‘독일예술의 집(Haus der Kunst)’에서 매년 개최되는 <위대한 독일 미술전>(Grossen Deutschen Kunstausstellung) 개막식에서 1940년 7월 27일 한 연설을

등 중국인들의 글이 실리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자주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일본 외무성과 관계를 맺고 대일협력을 했던 흥아 건국운동의 기관지 『흥건(興建)』⁶⁵⁾에 실린 글들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시국의 옹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장』은 이토 세이(伊藤整)나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 사카키야마 준(榊山潤) 등 작가·학자들의 글을 싣기도 하는데, 이들은 주로 ‘국민문학’이나 ‘신체제’와 문학의 관계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었다. 때마침 『일본평론』에서도 ‘신체제 하의 일본’이라는 특집으로 1940년 9월 임시호가 발간되고, 『문예』 1940년 12월호에서는 ‘국민문학에 대해서’라는 특집이 마련되는데, 『문장』에서는 전자에서 평론가 시미즈 이쿠타로와 후자에서 문학연구자 이토 세이, 소설가 사카키야마 준의 글을 골라 번역한다. 기실 조선에서도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설립되고 1940년 10월 14일 『조선 국민조직 신체제요강』이 발표되며,⁶⁶⁾ 모든 문인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단순히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신체제하의 문학’이나 ‘국민문학’ 등을 요구받았던 이 시기에 작가로서 또 잡지 편집진으로서 어떻게 신체제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참조점으로 기능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문장』에서 마련된 ‘SCRAPS’와 시국 관련 글들(아울러, 앞서 보았던 ‘전선문학선’)은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번역

실은 것으로, 『문예』 1940년 10월호에 「전쟁과 예술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을 중역한 것이다.

65) 송가배, 「위상 높아진 ‘상하이 점령지 문학’, 항전 서사만 있었을까」, 『교수신문』, 2022. 10. 2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5696> (최종 검색일: 2024. 2. 8.).

66) 이른바 ‘신체제’의 확립이 조선문학의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는 하재연, 「신체제(新體制) 전후 조선 문단의 재편과 조선어·일본어 창작 담론의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화회, 2013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대상이 실린 매체에 주목한다면 일관되게 일본어 잡지들, 즉 『개조』, 『대륙』, 『문예』(이상 개조사), 『신초』(신초사), 『중앙공론』(중앙공론사), 『문예춘추』(문예춘추사), 『일본평론』(일본평론사), 『세르팡』(다이이치쇼보), 『지성』(가와데쇼보)에서 번역해오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잡지들이 종합지 내지는 문예지로서 조선에서도 손쉽게 입수 가능하고 일본어 독해가 가능한 독자들에게 의해 활발히 읽히던 잡지였음은 물론이다. 사실 당시 조선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일본어 잡지를 굳이 번역해서 잡지에 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 지식인 대다수가 일본어를 독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본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 시장성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가급적 매체의 내용을 독점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⁶⁷⁾

그렇다면 이처럼 일본어 잡지에 실린 글들을 동시에 번역했을 때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이미 일본의 미디어 환경에서 한 차례 검증이 완료된 텍스트를 번역함으로써 검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

67) 한기형은 왜 식민지기에 일본어 소설이 많이 번역되지 않았는가에라는 문제에 대해, 첫째로 “시장성의 불확실성”, 둘째로 “조선이라는 지역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토착출판 자본이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배타성”, 셋째로 검열의 관점에서 “사상의 번역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제기한 바 있다. 한기형, 앞의 글, 52면. 이는 일본어 ‘소설’에 대한 논의이지만, 이들은 조선어 매체에서 구태여 일본어 텍스트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고 일본어가 ‘국어’로서 널리 교육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단적으로 히노 아시헤이의 『보리와 병정』이 니시무라 신타로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된 것은, 그것을 “전(全)조선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일본어 해독자(혹은 일본어로 능숙하게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외에게만 발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박광현, 앞의 글, 402~403면). 일본제국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여전히 조선어는 번역의 ‘목표 언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코르시카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랑스어도 사용하므로 어떤 책을 프랑스어에서 코르시카어로 번역한다 해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번역 행위는 코르시카어가 별개 언어라는 관념을 강화한다’고 보며, “번역은 언어 창조에 참여한다”고 한 매슈 레이놀즈의 주장을 새삼스럽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매슈 레이놀즈, 이재만 역, 『번역』, 교유서가, 2017, 43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글들 중 앙드레 올만의 『폴 니장 회견기』나 세실 코놀리의 『문학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에는 말줄임표(……)로 복사 처리 된 부분이 있는데,⁶⁸⁾ 어떤 글들이든 검열에 의해 삭제될 경우 잡지 자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⁶⁹⁾ 일본의 대중지에 실린 글들을 다시 번역게재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면서도 검열의 위험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되었을 법하다.

또한 이와 같이 시국을 ‘번역’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1941년의 『문장』에서 일본인 필자들이 새로이 집필한 글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문장』 25호(1941.3.)에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원으로 특히 영화 검열 담당을 맡고 있었던 오카다 준이치(岡田順一)의 글이, 26호(1941.4.)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이었던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의 글이 실리게 된다. 오카다는 총독부 경무국에서 검열관으로 재직하며 『경무회보』에 영화검열에 대해 쓴 바 있어 1930년대 중반 이후 영화검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⁷⁰⁾ 『문장』에는 1940년 공포된

68) 『문학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에서는 작가가 전쟁이라는 정치상황으로부터 ‘도피’하여 예술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때 “따라서 내가 작가에게 줄 수 있는 충고는 ……에서 손을 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을 승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 그리 소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복사처리된 ‘……’은 일본어 원문과도 동일하다. 『폴 니장 회견기』에서 복사처리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각주 57을 참고.

69) 『문장』의 편집자였던 조풍연의 회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편집자들 사이에서 검열에 의한 삭제가 누적되는 것이 잡지 자체의 존폐로도 연결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장』은 원고가 다 모이면 반드시 총독부 도서관에 검열을 맡았다. 한번은 월탄의 시가 2행 깎여 나왔다. 그것이 깎여도 시가 다 죽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월탄이 듣고 발표를 거부하였다. / 그 시는 해방 후에 온전한 모습으로 당당히 발표되었다. / 총독부에서는 비위에 거스리는 것을 깎아 없애는 것뿐이 아니라 깎인 줄수를 따로 기록하여 『성적』을 매기고 성적이 불량한 것은 폐간시킨다는 경고를 퍼뜨렸다. / 『문장』은 매번 붉은 줄에 관인(官印)이 찍힌 『삭제』가 나오고 『전문 삭제』가 수두룩하여 더 이상 내기가 어려워졌다.” 조풍연, 『문장·인문평론 시대』,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1983, 220~221면.

70)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실천·텍스트』, 소명출판, 2011, 45면.

조선영화령에 대해 그 제정 이유와 영화 제작/배급/상영 부문에 있어 시행 규칙과 검열제도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 것이다. 당시 조선어 신문으로 『매일신보』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문장』에 영화령에 대한 설명글을 게재한 것은 새삼스럽지만 1940년대 잡지가 총독부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 야나베의 글은 무용가 조택원이 참여한 무용극으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최하고 총독부의 후원을 받은 〈부여회 상곡〉에 대한 글로, 1941년에 이르러 『문장』은 단순히 시국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글을 ‘번역’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글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검열이 보다 강화되어 가는 신체제 하에서 『문장』이 지속적으로 시국을 ‘번역’한 것은, 제국의 기획에 맞추는 글을 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집필하기보다는 국제 정세나 구미 작가들의 전쟁에 대한 견해, 일본에서도 한창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 국민문학론의 일부를 번역해 오는 방식으로 검열을 우회하고 시국과의 거리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41년 초까지로, 이러한 ‘우회 조작 불가능해졌을 때, 『문장』은 총독부 직원이나 관제 단체 부장이 새로 집필한 글을 신고 결국 폐간에 이르게 된다.

5. 결론

『문장』에 실린 번역 텍스트를 크게 외국문학 작품이나 평론을 직접 번역한 ‘외국문학’과 일본의 전쟁문학을 번역한 ‘전선문학선’, 일본어 중역을 거쳐 구미 작가들의 글을 소개한 ‘SCRAPS’, 그 외 시국 관련 글들로 나눈다고 할 때, 이 글에서 각 번역 텍스트의 번역 저본과 그 방식 등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장』은 양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외국문학의 번역을 게재했는데, 작품의 성격이나 역자의 경향에 있어 큰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러한 ‘비일관성’은 『문장』의 광범위한 필진 구성 전략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193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외국문학 수용 방식이 ‘세계문학으로부터 배워 조선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테제나 외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한 ‘교양’ 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체계적인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기존 문단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특한 작품이 번역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장』에서 마련된 ‘전선문학선’이나 ‘SCRAPS’, 그리고 시국 관련 글들은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일관되게 동시기의 일본어 잡지들(『개조』, 『대륙』, 『문예』, 『신초』, 『중앙공론』, 『문예춘추』, 『일본평론』, 『세르팡』, 『지성』 등) 혹은 단행본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서도 ‘전선문학선’은 다른 외국문학의 번역과는 달리 작품의 극히 일부만을 초역하면서도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데, 결과적으로 번역수록된 텍스트에서는 각 작품의 주제의식보다는 전장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게 된다. 당시 조선의 비평계에서 일본의 전쟁문학이 그저 ‘보고문학’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았음을 고려할 때, 전쟁문학의 초역은 이러한 관점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있다.

셋째, 『문장』은 구미 작가들의 에세이나 여타 시국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글들을 일본어 매체에서 번역해 옴으로써, 시국에 직접 참여하고 그와 관련한 글을 남기기보다는 그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일본어 매체를 중역한 것은 검열체제 하에서 정치적 성격의 글들을 실으면서도 일본의 미디어 환경에서 검증이 완료된 것을 번역함으로써 검열을 우회하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문장』은 시국과 관련한 ‘번역 텍스트’가 아닌 ‘새로 쓴 글’을 신게 되면서

폐간 직전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검토한 『문장』의 번역 텍스트는 번역 방식이나 그 내용 등에 있어서 제각기 차이가 있으나 잡지의 지속적인 출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문장』은 조선문학의 일반적인 창작 경향과 차이가 있는 다른 시공간의 문학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동시에 시국에 직접 관여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번역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일전쟁과 신체제, 세계대전이라는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장』의 번역 텍스트 전반을 다루면서, 기존 연구에서 면밀하게 밝혀지지 않은 각 번역 텍스트의 번역 저본을 확인하고 그러한 번역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살피고자 했다. 『문장』의 번역은 특정한 기획의도의 천명에 의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중역 없이 반드시 직접 번역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도 않았으며, 전문(全文) 번역을 목표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에 따라 문학 텍스트의 원전을 철저히 번역하는 데 집중하는 시도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역 행위가 특정 개인에 의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잡지라는 매체의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번역의 내용뿐 아니라 번역 행위의 수행 방식 자체에서 『문장』 번역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의의를 갖는다. 여러 차례 서술하였듯 ‘번역’과 관련한 정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매체를 둘러싼 여러 제반 조건 속 번역 행위의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은, 『문장』의 매체 전략이나 정치성을 재고할 여지를 마련할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에서 ‘번역’이라는 행위가 지닐 수 있었던 수행적 효과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역자의 섭외 기준이나 실제 번역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소상히 밝히지 못했으며, 당대의 담론을 토대로 추론에 그친 부분 또한

있다. 추후 이러한 ‘번역’의 방식이 동시기의 다른 매체(특히 『인문평론』)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또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를 통해 실제로 번역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있는지, 『문장』의 주요 편집진들의 번역관을 염두에 두면서 번역 행위와 문학관을 연결지을 수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문장』의 번역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문장』, 『삼천리』
이상, 「첫번째 방랑」, 『이상 전집 4: 수필』, 태학사, 2013.
예전젠, 장정렬 역, 『잊힌 사람들』, 진달래, 2023.

2. 단행본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김삼수, 『한국에스페란토운동사(1906~1975)』,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6.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범양사, 1988.
매슈 레이놀즈, 이재만 역, 『번역』, 교유서가, 2017.

3. 논문

- 강호정, 「양주동의 『近古東西奇文選』을 통해 본 『문장』의 미의식」, 『어문논집』 43, 중앙어문학회, 2010.
김슬기, 「『문장』의 미적 이념으로서의 『문장』: 김용준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문혜운,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와 조선어문」, 『흔들리는 언어들: 언어의 근대와 민족국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서승희,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세계/민족,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_____,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손성준, 「세계문화과 민족문학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 주체의 향방, 홍명희의 경우」, 『코기토』 9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손유경, 「『문장』의 전위와 전통」,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 오은하, 『폴 니장, 1930년대 작가의 갈등과 선택』, 『불어불문학연구』 109,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 이병수, 『이상(李箱)의 시 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와 탈 지방성』, 『비교문화연구』 5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 이봉범, 『잡지 『문장』의 성격과 위상』,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 이상경, 『제국의 전쟁과 식민지의 전쟁문학: 조선총독부의 기획 번역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兵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2019.
- 이상숙, 『『文章』의 해외문학 연구』,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 이종호, 『검열의 상전이(相轉移), ‘친일문학’이라는 프로세스』, 한기형 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장만호, 『『문장』: 문학에서 문화로: 『문장』지 소재 수필의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11-2, 한국근대문학회, 2010.
- 전세진, 『정지용 번역 연구(1): 정지용 초기 시 번역의 특징—정지용의 타고르(R. Tagore)와 블레이크(W. Blake) 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2, 한국근대문학회, 2020.
- , 『정지용 번역 연구(2): 번역과 창작 사이, 자기 변용적 창조—그리스 신화의 모티프 차용을 통한 시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4, 한국현대문학회, 2021.
-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실천·텍스트』, 소명출판, 2011.
- 정기인, 『김억의 한시 번역과 “조선적 근대시”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 정선태,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과 종군문학: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 정주아, 『『文章』誌에 나타난 ‘古典’의 의미 고찰』, 『규장각』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조풍연, 『문장·인문평론 시대』,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1983.
-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 최지현, 『세계문학의 번역과 근대 조선의 교양주의: 『해외서정시집』(1938)을 중심으로』, 『배달말』 73, 배달말학회, 2023.
- 최진석, 『근대/중국/여성의 자기서사와 1940~1960년대 한국의 중국 이해: 세빙잉(謝

- 冰瑩) 자서전의 수용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 하재연, 「『문장』의 시국 협력 문학과 「전선문학선」」, 『한국근대문학연구』 11-2, 한국근대문학회, 2010.
- _____, 「신체제(新體制) 전후 조선 문단의 재편과 조선어·일본어 창작 담론의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 한기형, 「법역과 문역: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식민지 텍스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한성례, 「이상이 언급한 『세루팡』 소재 「암살당한 시인」과 「암고양이」」, 『이상리뷰』 10, 이상문학회, 2015.
- 홍석표, 「이육사의 후스(胡適) 문학사 저작의 번역과 구딩(古丁) 단편소설의 번역」, 『중국현대문학』 98,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21.
-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요네타니 마사후미, 장문석 역, 「『제국』의 미디어와 문화공작의 네트워크: 중일전쟁기의 문화항쟁」, 『동아문화』 5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21.

4. 기타

- 송가배, 「위상 높아진 '상하이 점령지 문학', 항전 서사만 있었을까」, 『교수신문』, 2022.10.2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5696>(최종 검색일: 2024.2.8.).

Abstract

Aspects and Meanings of the Translation in *Munjang*

Jung Seonghoo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original texts translated in *Munjang*(1939~1941), search for characteristics of the their translation, and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se translation practices in light of the censorship, the media environment, and discourse of the time.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d from this study.

First, *Munjang* consistently published 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ture, and while it was difficult to find consistency in the works or the translators, the inconsistent planning of transl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to publish a variety of texts that were not absorbed into the concept of 'world literature that Korean literature should pursue' or 'world literature as liberal arts'.

Second, texts like 'War Literature,' 'SCRAPS,' and the current affairs in *Munjang* are presumed to have been translated from Japanese magazines or books in real-time,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contents. Especially, 'War Literature,' unlike other 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ture, translated only a small part of the original work, thus standing out for its fragmentary description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original work, which is in line with the view of Japanese war literature as 'reportage literature' in Korean critiques at the time.

Third, *Munjang* retranslated essays by Western writers and other texts dealing with political issues, already published by contemporaneous Japanese media in real-time. In particular, this retranslation of Japanese magazine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bypass censorship by publishing political texts that had been 'verified' from Japanese media.

The translated texts of *Munjang*, while differing in style and content, were indispensable for the continuous publication of the magazine. As a result, *Munjang* could present 'literature' from another time and space that differed from the usual

works, and at the same time, by ‘translating’ rather than creating texts about political issues, could achieve the effect of distancing itself from political commitment related to the Sino-Japanese War, the new system, and the World War II. Since these translation practices were a continuous process in the publication of the magazine, studying the translation in *Munjang* not only provides chance to reconsider the media strategy or political nature of *Munjang*, but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ranslation” in the magazine medium in colonial Korea.

keywords: *Munjang*, Translation, Foreign Literature, War Novel, Censorship, Colonial Media

접수일자: 2024.3.16.

심사기간: 2024.3.21.-2024.4.7.

게재결정: 2024.4.25.